

健全한 産卵鷄 孵化場의 育成이 시급하다

盧 永 翰

(本紙 編輯局長)

1. 緒 言

근자에 一般 採卵 養鷄業者들로부터 初生雛를 求하기가 쉽고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즉, 自己가 원하는 계통의 병아리를 信用있는 孵化場에서 求入하기는 어려우나 全体 生産되는 物量은 充分하다는 이야기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最近들어 初生雛 品質問題로 一般 飼育者和 孵化場間에 마찰이 종종 있으며 우리 業界 밖에서 問題가 된 적도 있다.

肉用鷄와 産卵鷄의 初生雛 價格이 이제 거의 差가 없게 되는 기 現狀은 孵化業者들로부터 하여금 産卵鷄孵化를 기피하고 肉用鷄專用 孵化場으로 유도하고 있어 現在와 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1~2年内에 10個以內的 孵化場이 産卵用 初生雛 需要를 거의

全量 供給하게 될 것이며 이中에서 5個以內的 孵化場이 70% 이상을 供給하게 되지 않을까 生覺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몇개의 大型 企業화된 孵化場으로 發展시킬 것인가 또는 中間 계층의 孵化場爲主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業界에서 充分히 檢討되어 政策에 반영시킬 때가 왔다고 보겠다.

2. 너무 많은 孵化場

本協會 指導調査部에서 調査한 78. 2. 17日 現在 全國의 孵化場數는 324個이며 78年度 初生雛 生産計劃首數 89,234,000 首(卵 26,984,000 肉 62,250,000 農水産部)를 나누어 보면 1個 孵化場 當 275,414 首의 初生雛 生産으로 月平均 22,951 首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孵化場의 發展이 늦어지고 있는 重要 原因이 되고 있다.

表 1 全國 孵化場 및 種鷄場 現況 (78. 2. 17)

도	별	부화장수	허가부화장수	종계장수	등록종계장수	비고
서	울	21	18	5	3	
경	기	59	35	82	57	
강	원	14	14	14	15	
충	북	9	7	10	8	
충	남	84	30	66	19	
전	북	57	9	55	20	
전	남	15	6	10	8	
경	북	39	21	40	30	
부	산	24	8	29	20	
제	주	2	2	2	-	
	계	324	150	313	237	



육용계와 산란계의 초생추 가격이 이제 거의 차가 없게 되는 기 현상은 부화업자들로 하여금 산란계 부화를 기피하고 육용계전용 부화장으로 유도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1, 2년 내에 10개 이내의 부화장이 산란계 초생추 공급을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表 4 77년 시도별 중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시도	육추	산란	육계	합계
서울	65,002	222,045	68,396	355,437
부산	30,359	116,685	34,635	181,679
경기	37,424	125,769	58,855	222,048
강원	2,632	4,566	6,533	13,731
충북	9,859	32,412	13,993	56,264
충남	22,111	62,121	23,147	107,379
전북	13,557	17,032	12,514	43,103
전남	6,701	14,299	2,231	23,231
경북	26,334	92,007	16,821	135,162
경남	3,110	10,338	3,442	16,890
제주	-	-	-	-
합계	217,089	697,274	240,561	1,154,924

4. 78年度 初生雛 출하예정 수수

73年度 10月 産卵種鷄가(GPS) 마지막으로 輸入된 후 每年 産卵用 種鷄 首數가 감소하여 78年度에 使用될 種鷄 首數는 167,271首까지 되었다. 産卵鷄의 경우 肉用鷄에 比하여 換羽가 용이하고 種鷄의 産卵率이 높은 點도 있지만 이에 대체될 國

産鷄 개발 보급이 뒤따르지 못해 肉用鷄와 같이 國産種鷄로 代替되지 않고 있어 年間 國立種畜場 및 한협을 통하여 7~8萬이 분양될 정도이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産卵用 種鷄의 需要가 566,000首에 比하여 167,000 여수는 78年度 上半期 初生雛市場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상반기 8萬首가 導入되고(77年 輸入추천분) 76년에 導入된 PL에서 生産되는 PS가 入殖되어 6月以後는 원활한 初生雛 供給이 예상은 되나 大部分의 孵化場이 産卵鷄 孵化를 매력없는 事業으로 生覺하는데 問題가 있다.

5. 産卵種鷄의 適正首數 入殖 必要

우리 業界에서 識者들이 걱정하기를 産卵鷄 初生雛 不足과 이에 따른 副作用이 肉用鷄와 달라 早期 判別이 어렵고 一般 飼育者에게 피해가 크다는 點이다.

77年말 業界의 要請에 依하여 15萬首의 種鷄가 導入될 때는 이리만큼 때문에 肉鷄 5萬의 倍인 10萬首로 結定된 것으로 生

表 5 78. 6. 30까지 유효한 種鷄(78. 1. 7 기준)

	산란계			검용계			육용계		
	외국계	국산계	합계	외국계	국산계	합계	외국계	국산계	합계
서울	10,620		10,620	-	-	-	15,990	-	15,890
경기	23,973		28,473	-	16,421	16,421	22,491	92,332	114,823
강원	-		-	-	-	-	-	10,837	10,837
충북	-8		-	-	1,000	1,000	3,650	9,625	13,276
충남	12,288		23,928	-	32,372	32,372	26,118	44,518	70,606
전북	13,726		16,590	1,954	43,395	45,349	20,424	18,485	38,909
전남	2,000		2,000	-	3,670	3,670	400	3,900	4,300
경북	6,200		13,428	-	24,131	24,131	17,733	4,818	22,551
부산경남	2,200		6,530	1,450	15,490	16,940	7,280	25,140	32,420
제주	0		-	-	1,600	1,600	-	800	800
합계	71,007		101,569	3,404	13,079	141,483	114,086	210,456	324,542
	5,019		65,702	12,553	113,795	136,348	68,795	43,399	112,194

3. 初生雛 출하조사 유감

1977年 實用鷄 初生雛를 生産할 수 있는 種鷄(PS)를 보면(種鷄 確認基準) 아래와 같다.

외 국 계		국 산 계	계
비환우계	환 우 계	비환우계	
116,928	25,413	15,598	157,939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年度 種鷄 確認된 白色産卵鷄는 158,000여수에 불과하며 種鷄 生産 분양된 된 것을 기준으로 보아 누락분을 100,000만수로 추정해도 25萬수밖에 되지 않는다.

用初生雛 入殖 現況은 畜産法 改正에 따라 正確한 生産報告를 每月 定期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77年度는 法施行 첫해로 施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有一한 初生雛 출하調査 統計인 本會 調査와 飼料協會調査 初生雛用 配合飼料 生産調査量으로 77年 産卵用 初生雛 출하량을 추정하기로 한다.

表 3,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育雛期 首當 飼料攝取量을 10kg로 計算할 경우 21,700千首가 되며 77年度 MD 백신 출하량이 24,000千首 등으로 미루어 77年度 需要 추정수수 19,755,000首 정도 출하되

表 2 年度別 백색산란계 種鷄 수요수수

(농수산부자료)

년 도	수당계란생산	총계란수요량	실용계수요량	중계수요량	1인 당 계란소비량	비 고
77	205	3,534,292(전계)	17,240,448	431,011	97	중계 1수가
78	208	4,109,109	19,755,331	493,883	111	실용계 40수생산
79	211	4,775,835	22,634,289	565,857	127	으로계산
80	214	5,576,762	26,059,635	651,490	146	
81	217	6,480,769	29,865,294	746,632	167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년도에 약 431,000수의 산란 중계가 필요하였으나 실제 25萬 여수의 중계밖에 입식되지 않았음은 77년도 산란용 초생추의 심한 부족으로 많은 首數의 入殖이 不可能 하였어야 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採卵業界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여 77年度 實用鷄 入殖 現況을 다시한번 檢討할 必要가 있겠다 實

였다고 추정된다. 이 初生雛 출하 首數가 우리에게 주는 뜻은 25萬 정도의 種鷄에서 生産된 이중 一部分가 不良雛 또는 A를 B로 잘못 분양되지 않았나를 의심하게 한다. 이러한 일은 法改正後 처음해이고 78年度 후반기 부터는 自然 解決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表 3 77년 초생추 출하조사 수수

구분	분기별	1 / 4 분기	2 / 4	3 / 4	4 / 4	계
수입계		3,155,964	3,009,021	2,910,101	3,173,292	12,248,378
국산계		73,420	153,365	63,370	196,088	486,243
계		3,229,384	3,162,386	2,973,471	3,369,380	12,734,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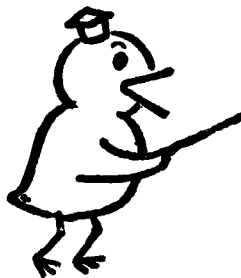
覺되어진다.

막상 種鷄를 導入함에 있어서는 豫想과 달리 產卵種鷄는 8萬首밖에 導入되지 않았다.

現在 PL 3 農場에도 肉用鷄 需要에 供給量이 絶대량이 不足하나 產卵鷄는 別로 入氣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種鷄는 不足한데 入殖이 되지 않는 現實을 타개하기 爲하여 다음 方法을 제언한다.

1. 產卵鷄와 肉鷄 孵化의 收益이 均衡을 이루어야 하며 採卵養鷄의 大型 工場化는 孵化業도 몇개의 大型孵化場으로 集約되게 하여 養鷄業의 中間層 形成發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2. 消費者 기호에 맞는 系統의 種鷄가 入殖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3. 닭의 防疫衛生 飼料의 品質 飼養管理 여건 등이 改善되어 良心의으로 能力이 優秀한 健康雛를 販賣하였을 때 入雛에서 老鷄 處分까지의 販賣 사후관리에 不安感이 없도록 綜合的인 制限 여건이 造成되어야 한다.
4. 鷄卵의 加工食品으로 利用되는 比率이 높아져 採卵養鷄도 年中 孵化되도록 初生雛 需要의 季節 振幅이 좁혀져야 한다.



청량리가축약품

- ◎ 병리검사 무료실시
- ◎ 호흡기병(CRD)特效약
- ◎ 빠다리병(포도상구균)特效약

호평리에 발매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 597-32
 (한국육계회연락처) ☎ (주간) 966-8780
 (야간) 49-4878

